

## [보도자료]

### “2006년 여성경제활동인구 1000만명 시대 열었다”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 김 인 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dlsgml21@naver.com)

보고서 관련 문의 : 주 재 선 전문연구원

(연락처: 02-3156-7192, 이메일: jjs2000@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기존 통계보고서에서 나타난 여성 관련 통계를 영역별 재분석하여 2007년도 여성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나타난 여성통계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 25~29세 여성 100명 중 59명은 미혼자

25~39세 미혼 여성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29세의 경우 1990년 미혼비율이 22.1%에서 2005년 59.1%로 37.0%p 증가했으며, 30~34세 미혼 여성 비율의 또한 1990년 5.3%에서 2005년 19.0%로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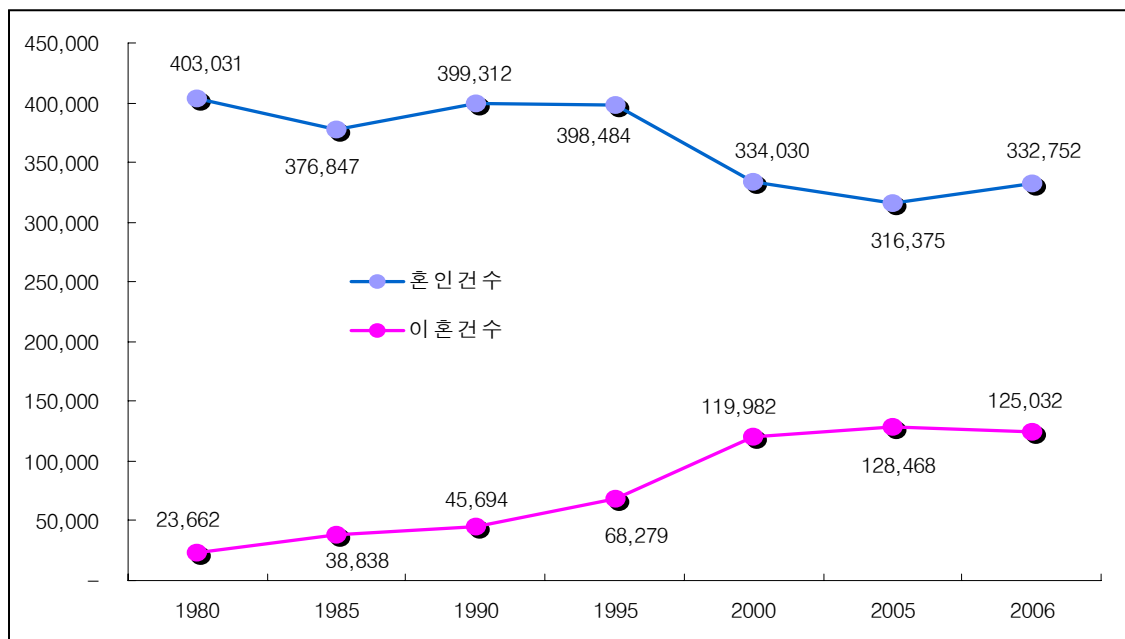
<표 1> 25~39세 인구의 미혼비율

연도	여성			남성		
	25~29	30~34	35~39	25~29	30~34	35~39
1980	14.1	2.7	1.0	45.2	7.3	1.7
1990	22.1	5.3	2.4	57.3	13.9	3.8
2000	40.1	10.7	4.3	71.0	28.1	10.6
2005	59.1	19.0	7.6	81.8	41.3	18.4

# ◇ 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자녀수는 1.13명, 전년대비 0.05명 증가

2006년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출산하는 총 출산아 수)은 **1.13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0.05명 증가했다. 이는 매년 감소했던 혼인수가 2004년 이래 증가했고 더불어 출생아 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아 선호는 여전하여 여아 100명당 남아가 107.4명이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3째 아의 경우 출생성비가 121.8로 높게 나타났다(여성통계연보 pp58 참조).

<그림 1> 혼인건수 및 이혼건수 증감 추이 : 1980~2006



<표 2> 합계출산율 및 출생성비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합계출산율	4.53	2.83	1.59	1.47	1.08	1.13
출생성비	109.4	105.3	116.5	110.2	107.7	107.4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0.3%, 여성 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 시대 도래

2006년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 50.3%가 경제활동<sup>1)</sup> 함으로서 여성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10,001천명) 시대를 열었다. 실업자는 전년대비 40천명 감소했고 취업자 수는 180천명 증가하였다. 혼인상태별로 기혼의 경제활동참여는 증가했고 미혼은 감소했으며, 전문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증가 뚜렷했다. 반면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5%p로 감소한 74.1%를 보였다(여성통계연보 pp181~188 참조).

<표 3> 경제활동인구

연도	경제활동인구(천명)		경제활동인구(천명)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0	9,101	13,034	9,101	13,034	48.8	74.4
2005	9,860	13,883	9,860	13,883	50.1	74.6
2006	10 001	13,978	9,706	13,444	50.3	74.1

◇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남성근로자의 63.9% 수준

노동시장에서 여성 임금(월급여액+연간특별급여액/12)은 1,783천원으로 남성임금의 63.9%로 나타났다. 여성임금은 6년 전과 비교하여 452천명 증가하였고 남성과의 임금격차가 1.0%p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

1) 통계청은 2008년 1월에 국가통계포털에서 2007년 경제활동인구를 발표했다. 이것에 의하면 2007년 여성경제활동인구는 10,092천명이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2%로 나타났다.

문대졸 여성임금이 중졸이하 남성 임금보다 낮게 나타나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더 큰 임금격차를 보였다(pp256~259 참조).

<표 4> 남녀의 임금격차

(단위 : 천원, %)

연도	여성근로자 임금	남성 근로자 임금	임금격차
2000	1,331	2,120	62.9
2006	1,783	2,790	63.9

<표 5> 교육정도별 임금격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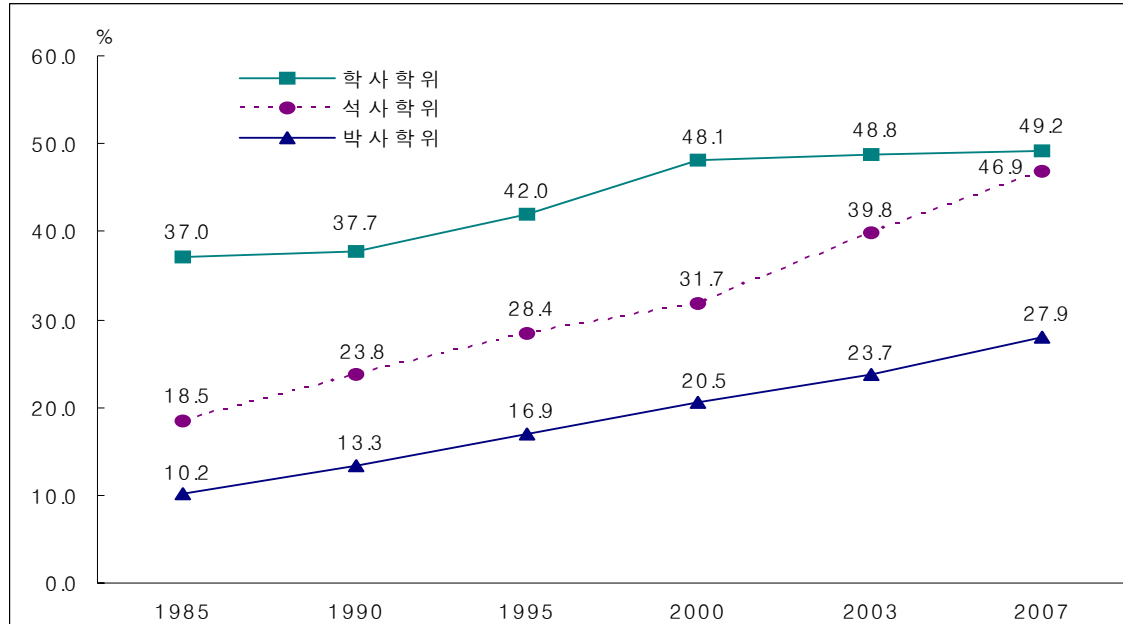
연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0	80.8	137.1	100.0	150.1	109.1	156.5	160.8	225.3
2005	80.2	131.0	100.0	148.8	109.4	154.4	152.8	226.9
2006	80.5	132.1	100.0	149.3	107.6	152.2	150.0	225.1

주 : 고졸 여성을 100으로 두었을 때의 임금 비율

#### ◇ 2007년 석사 학위자 100명중 47명과 박사 학위자 100명 중 28명은 여성

2007년 대학졸업자의 49.2%, 석사학위자의 46.9%, 박사학위자의 27.9%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학사학위의 경우 2004년 이후 학위자의 절반이상이 여성이었으나 2007년 약간 감소했고, 석사 학위자는 2004년 이후 40%를 넘긴 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박사 학위자의 여성비율은 증가속도가 다소 느려, 1999년 20%를 넘긴 후 8년 동안 7.4%p의 증가에 머물렀다.

<그림 2> 학위 취득자의 여성비율



◇ 행정고시 49.0%, 외무고시 67.7%, 사법고시 35.2%가 여성

2007년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최종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는 498명으로 38.7%를 차지했다.(여성통계연보 pp368)

이외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은 2006년 82.4세로 남성(75.7세)과 비교하여 6.7세 많았고, 45~49세의 사망률 성비가 289.8로 여성 100명당 남성 사망률이 290명가량 사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HRD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의 권한 정도를 나타내는 GEM(여성권한척도)은 93개국 중 53위로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고 GDI(남녀평등지수)는 157개국 중 26위로 전년대비 1단계 하락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개원 이래 양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을 담당해 왔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 및 여성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